

“상반기 수익률 26년 만에 최고… 내년 3600선 가능성”

코스피 ‘고공행진’

李 정부 출범, 정치 불확실성 해소
각종 증시부양책 집행 기대감 확산
外人 5~6월 코스피시장 3조 매수

“9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 영향
하반기에 단기조정 올수도 있어”

#“3년이나 기다려 이제 겨우 본전인데…
팔아야 할지, 추가로 더 넣어야 할 지 고민입
니다. 주변 지인들을 보면 국장 유턴은 지능
순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…” (40대
회사원 이모 씨)

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. 1일
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.58% 오른
3089.65에 마감했다. 이날 장중에는 연
고점인 3133.52를 찍었다. 이재명 정부
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
각종 증시 부양책이 집행될 것이란 기
대감이 확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.

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5000까
지 갈수 있을까.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
센터장은 “기업이익이 제자리인데 주가
만 오를길 기대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
것”이라며, “시장 자체가 매력 있어야 기



코스피가 전 거래일(3071.7)보다 17.95포인트(0.58%) 오른 3089.65에 마감한 1일 서울 여의도
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. /뉴시스

업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금도 모
을 수 있다”고 말했다. 그는 한국 증시가
낮은 자기자본이익률(ROE)과 소극적인
주주환원 등 구조적 문제로 만성 저평가
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.

◆증시로 향하는 ‘스마트머니’

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고
있다. 상반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1999
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.
한국거래소에 따르면, 코스피 지수는
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28.01% 상승했
다. 이는 1999년(57%) 이후 가장 높은
상반기 수익률이며, 지난해 같은 기간
상승률(5.4%)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

수준이다.

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은 뭘까. 전문
가들은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한 낙관론
에 힘이 실리는데다 상법개정안에 반대
하던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
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대감이 재차
발현된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.

외국인이 가장먼저 반응했다. 1일 한
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해 8
월부터 올 4월까지 9개월 동안 38조
5000억 원어치의 코스피 주식을 팔아
치웠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
관세 정책을 발표한 4월에만 9조4000억
원을 순매도했다. 하지만 지난해 12월

부터 올 4월까지 1400원이 넘는 월평균
원-달러 환율이 지난달 1390.7원까지
떨어지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
다. 외국인은 5월과 6월에 코스피시장
에서 각각 1조173억원, 1조9256억원어
치를 사들였다.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
환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여기에
“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”고 약속한
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증시 부양책에
대한 기대 역시 커졌다.

증시 주변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.
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투자
자 예탁금은 67조7127억원으로 늘어났
다. 전날에는 69조원대를 찍었다. 이는
2021년 1월 28일(70조3447억원) 이후 4
년 5개월만에 최대 규모다.

‘빚투(빚내서 투자)’ 수요도 다시 고
개를 들고 있다. 신용거래용자 잔액은
전달 26일 기준 20조6831억원을 기록했
다. 지난 4월 14일(16조3045억원) 연저
점 대비 4조원 넘게 불었다. 신용용자
잔액은 통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
커질 때 증가하며, 반대로 시장 불확실
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빚을 상환하
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.

◆코스피의 종착역은 어디쯤일까

“단기 반등, 장기 부스트업” 이재명
정부의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

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.

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600선까지 오
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. 김병연 NH
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최근 한
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
담회에서 “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
이 예정대로 임법되고, 기업들도 자사
주 매입 등 적극적 주주환원에 나선다
면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 3600선까지
상승할 수 있다”고 내다봤다. 그는 “다
만 오는 7월 9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
종료, 불확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
리 인하 시기 등으로 올해 하반기엔 단
기 조정이 올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. 김수
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“고점을 정
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서 밸류에
이션이 비싸졌을 때 주식을 분할 매도
하는 수밖에 없다”며 “올해 예상 지배주
주 순익 기준 PER이 11.6배까지 상승
했는데 싸다고 보긴 어렵다”고 설명했
다. 그러면서 “2분기 기업 실적은 높아
진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
크다”며 “실적 발표 후 가격 조정이 올
수 있으므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
한 뒤, 조정받은 주도 업종에 다시 투자
하는 전략이 유효하다”고 말했다.

/원관희 기자 wkh@metroseoul.co.kr

상법개정·자사주 소각 이슈… ‘지주·우선주’ 뜬다

한달간 우선주 지수 12% 상승
“배당확대·주주환원에 수익률 개선”
LS·CJ 등 주요 지주사 52주 신고가

“지금이라도 ‘우지’를 사들여야 할까
요?” (40대 직장인 투자자 A 씨)

코스피가 3100선을 넘나들고, 상법
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주식 투
자자들이 ‘우지’ 관련주를 앞다퉈 사들
이고 있다. ‘우지’란 1989년 세상을 떠
들썩하게 했던 우지(소고기 기름)가
아니라 최근 코스피 시장을 달구고 있
는 우선주와 지주회사의 앞 글자를 한
글자씩 딴 말이다.

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
간 코스피 우선주 지수는 12.53% 상승

했다. 이를 추종하는 미래에셋자산운
용의 ‘TIGER 우선주 ETF’는 같은 기
간 13.40%의 수익률을 기록했다. 순자
산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. ETF 분
배율도 3%대를 기록하며 ‘TIGER 코
스피 ETF’ 등 일반 지수형 상품보다
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.

우선주도 급등세다. 두산2우B는 연초
대비 247.20% 상승했고, 삼성물산우B
(+41.54%)·한진칼우(+62.99%)도 상승
세를 나타내는 등 주가 흐름이 보통주와
비등하거나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
다. 전문가들은 “배당 확대와 주주환원
정책 강화가 우선주의 수익률 개선을 견
인하고 있다”며 “우선주가 구조적 수혜
주로 자리 잡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

고배당주인 ‘우선주’는 정부가 배당
촉진 기조를 명확히 밝히면서 시장에
서 재평가 받고 있다.

자사주 소각 이슈도 우선주 상승의 동
력이 되고 있다. 현행 상법상 우선주가
전체 발행주식 수의 25%를 초과하면 감
축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, 보통
주의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우선주
도 비례 소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.

지주사도 상법개정이란 호재를 달고
날아 올랐다. LS, CJ, SK, 효성, 하림
지주 등 주요 지주회사 주가는 최근 일
제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. 한화, D
L, LG, 영원무역홀딩스 등도 동반 강
세를 나타냈다. 지주사 주가는 그간 오
너 일가의 의결권 집중, 저조한 주주환

원 정책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
를 받아왔지만, 상법 개정으로 ‘소액주
주 권익 보호’와 ‘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’
가 제도화되면 밸류에이션 개선 여
지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

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“배당 확대
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
결국 높은 배당수익률의 우선주 투자
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며 우선주가 성
과를 내고 있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외국
인들은 배당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
적은 우선주에 주목하고 있다”며 “지배
구조 개편에 따라 수익률 개선 여지가
크다는 점에서 우선주가 구조적 수혜
주로 부상하고 있다”고 분석했다.

/허정윤 기자 zelkova@



삼성자산운용 KODEX 증권 ETF 순자산 3000억 돌파

삼성자산운용은 1일 KODEX 증권
상장지수펀드(ETF)의 순자산이 3000
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.

이 상품은 국내 증권업종 대표 기업
들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은 K
RX 증권 지수를 추종하며, 최근 증권
주 강세 흐름을 타고 빠르게 몸집을 불
리고 있다.

KODEX 증권 ETF의 수익률은 1개
월 27.6%, 3개월 79.9%, 6개월 93.9%
를 기록했다.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
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
시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.
실제로 코스피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
활발해지며 증권사들의 거래 수수료
이익 증가 등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
자 증권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.

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이 ETF의 순
자산은 5월 말 1005억원에서 6월 말
3202억원으로, 한 달 만에 2000억원 이
상 증가했다.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도
몰리고 있는 추세다. 연초 이후 개인 순
매수 규모는 1110억원을 기록해 1000
억원을 돌파했으며, 지난 일주일간 개
인 순매수도 335억원으로 KODEX
200에 이어 전체 ETF 중 세 번째로 높
았다.

/원관희 기자

美 증시 상승세… 서학개미, 배당주·반도체 하락 ‘방어적 베팅’

해외주식 Click

지난주 SCHD 4056만 달러 순매수
반도체 반대 추종 SOXS 2911만 달러

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
상승세를 이어가자 일부 서학개미(해
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)
들은 안정적인 배당주 및 하락한 반도
체주에 투자하는 등 방어적 포트폴리
오를 구사하고 있다.

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중
동 리스크 완화와 금리인하 기대감에
힘입어 미국 증시는 6월 한 달간 주요
지수가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. S&P

500 지수는 5% 이상, 나스닥지수는
6% 넘게 올랐으며, 다우지수도 약
4% 상승했다. 2분기 초반까지만 해
도 글로벌 무역 갈등과 관세 우려로 S
&P500이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리
기도 했으나, 투자심리는 빠르게 반
전됐다.

서학개미들은 지난주(6월 24~30일)
기준으로 슈왓 미국 배당주 ETF(SCH
D)를 4056만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.
SCHD는 미국의 고배당 대형주를 중
심으로 구성된 ETF로, 시장 변동성에
대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
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.

최근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자

에 대한 보복성 과세 조항(제899조) 삭
제를 의회에 요청하면서, 배당주 투자
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기대도 투자심
리에 영향을 미쳤다. 세법개정안의 제
899조는 미국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
단한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얻
은 이자·배당 소득에 추가 세금을 물리
는 것을 골자로 한다.

기존 법정 세율 대비 5%포인트를 추
가부과하고, 매년 5%포인트씩 인상해
최대 20%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. 이
런바 ‘보복세’로 불리는 이 조항은 외
국인 투자자의 배당 세금 부담을 늘려,
미 배당성장 ETF 수익률의 발목을 잡
은 주요인으로 꼽혀 왔다.

AI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주가 최근
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학개
미들은 반대로 하락 위험에 대비한 움
직임도 나타냈다. 이들은 ICE 반도체
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
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
어 3배 ETF(SOXS)를 지난주 2911만
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. ICE 반도체
지수가 지난주 6%가량 오르는 강세를
보였음에도, 이같은 투자는 단기 조정
가능성과 고평가 부담을 의식한 시장
변동성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.

증권가에서는 미 증시가 부담스러운
구간에 진입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
한편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 모멘텀이
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
으로 내다보고 있다.

/원관희 기자